

교회 소식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날씨와 도로 사정으로 예배당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매일 저녁 9시 김동수 장로님을 위해, 나라들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노미라 집사 (시 139:1-6, 13-18)
- 1월 안내: 강승연 집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 **English Service:** 2:00pm, Zoom
-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제24권 1호

2024년 1월 7일

<2024년 문어>

열린 문으로

(요한계시록 3:7-8)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 <2:00pm> Presi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Prayer----- Pastor Edwin
- Word of God----- **Eze 18:25-32** -----Pastor Edwin
- Sermon -----“**A Fresh Start: --- Pastor Edwin Kim**
 Repentance”
- Reflection Prayer----- Together
-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예배를 위한 기도 -----인도자
- Worship Meditation**
-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 Call to Worship**
- *신앙고백 -----다함께
- Apostle’s Creed**
- *찬송 -----20(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Hymn** 524(313)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대표기도 ----- 시편 29 ----- 김현정 권사
- Prayer**
- 성경봉독 ----- **행 8:26-40** -----인도자
- Word of God**
- 설교 ----- “**기쁘게 길을 가므로**” ----- 이민영 목사
- Sermon**
- 인사 및 광고 -----인도자
- Greetings & Announcement**
- *찬송 --- 315(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함께
- Hymn**
- *축도 ----- 이민영 목사
-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오늘의 말씀

기쁘게 길을 가므로 (행 8:26-40)

복음은 실제 일어난 좋은 일입니다. 예수로 인해 죄인이 의인으로, 원수가 화목하게, 이방인이 자녀로, 허세가 참된 영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전해져야, 믿고 그렇게 살아야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들은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집사 빌립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변창도, 사마리아의 놀라운 기적들도 뒤로 하고 광야 길 없는 곳 내시 한 사람을 위해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많은 일 해드리는 것 이전에 내가 복음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가며 찾고 있던,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도 모름하던 그 복된 은혜를 복음을 듣고 찾았습니다.

내시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재산도 학식도 인품도 종교심도 훌륭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수레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대성전 세레조가 아닌 광야 작은 시내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낯선 이에 세례 받으며 비로소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로 인해 참된 존귀를 얻을 때, 이전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헛되어 졌으며, 애써 감추고 있던 모든 목마름과 가난함이 드러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참된 영광을 받고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민자로 존귀하게 사는 일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 은혜를 받지만 복음의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각자 자기 존귀와 의를 세우려다가 상처 주고 받기 쉬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랑하시며 사랑하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십니다. 복음이 사로잡은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